

R&I TRENDS

EU R&I 주간 브리핑

2025.08.06



Contents

▶ EU 연구혁신 정책 동향

- ① 독일 등 EU 국가들, 이스라엘에 대한 과학 분야 제재 추진에 신중한 입장 유지(7.31)
- ② 유럽 주요 정책 전문가들, FP10에서 ERC의 독립성 유지 촉구(7.31)
- ③ 가상세계 분야에서 EU의 전략적 역할: 혁신, 투자 및 글로벌 의존성(7.30)
- ④ 터키의 새로운 총장 임명법, 유럽의 기준과 충돌(8.1)
- ⑤ EU 바이오경제 청년 홍보대사 발족(8.6)

▶ EU 공모 현황 및 보고서 등

- ① EU, 호라이즌 유럽 기후·에너지·모빌리티 부문 2026-2027 워크프로그램 초안(8.4)
- ② EU 연구 프로젝트 내 사회과학 연구자 통합 여전히 장벽 존재(8.5)
- ③ 2024년 호라이즌 유럽 미션 공고에 30개 컨소시엄 선정(8.1)
- ④ 호라이즌 유럽 자금, EU의 지속적인 혁신 격차 드러내(8.5)
- ⑤ EIT 2024년 국가별 팩트시트 발간(7.28)

▶ EU 연구성과

- ① (성공사례) 보편적 개념으로서 '명예' 재정의
- ② (연구모음) 지속가능하고 순환적인 바이오경제 혁신을 통한 EU 번영 강화

1. EU 연구혁신 정책 동향

① 독일 등 EU 국가들, 이스라엘에 대한 과학 분야 제재 추진에 신중한 입장 유지[7.31]

- EU 회원국들은 가자지구 내 대규모 기아 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이스라엘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일부 중단 방안에 대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함
 - EU 집행위는 이번 주 초, 이스라엘의 인권 위반과 가자지구 봉쇄로 인한 “대규모 기아 위기”를 이유로 유럽혁신위원회(EIC)의 Accelerator 보조금 신규 지급을 중단하는 제재안을 발표
 - 이스라엘 스타트업 기업들은 EIC Accelerator 보조금을 통해 지금까지 총 1억 7천만 유로를 지원받았으며, 이 중 일부 기업은 드론 등 이중 용도 기술을 개발
 - 그러나 상당수 EU 회원국들은 아직 이러한 제재 방안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독일은 역사적 이유로 이스라엘에 대한 과학 분야 제재를 지지하기 어렵다는 입장
 - 익명의 한 EU 과학관은 “현 단계에서 빠른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하였고, 또 다른 과학관도 여름 동안 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급하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하며 이번 조치에 신중할 필요성을 강조
 - 반면,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측은 즉각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벨기에 Kennes 유럽의원은 “호라이즌뿐 아니라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이스라엘에 보이콧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
 - 이스라엘 외무부는 집행위의 제재 제안을 “잘못되었고 유감스럽고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
- 독일의 입장, 역사적 책임과 군사적 필요성 사이에서 고민

- 익명의 독일 정치권 인사는 “독일은 현재로서는 이러한 제재를 지지할 수 없다”며, 가자지구 내 강제 이주 상황 지속 또는 인도적 위기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 제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
- 독일 정부는 최근 35억 달러 규모의 이스라엘제 장거리 미사일 방어 시스템(Arrow 3) 구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이는 독일의 입장 발표 지면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지배적인 요인은 아니다”라고 관계자는 설명
- 집행위에 따르면 2021년부터 46개 이스라엘 스타트업 기업이 1억 550만 유로의 보조금과 6,380만 유로의 지분 투자를 받음
 - 대부분의 지원 기업은 의료 및 환경 기술 등 민간 분야에 해당하나 일부는 사이버보안 및 드론과 같은 이중용도 기술 개발 중
 - 대표적 사례로 드론 기술 기업인 Sightec은 250만 유로의 보조금을 받아 복잡한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 중이나, 이 플랫폼은 군사 및 보안 분야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의 대상
- 이스라엘 대학 및 학계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 확대
 - 이스라엘 주요 대학 5곳(Weizmann Institute of Science, Hebrew University, Open University of Israel, Tel Aviv University, Technion)은 최근 공동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의 심각한 기아 위기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
 - 이스라엘 과학인문학아카데미의 Harel 회장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행하는 일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끔찍한 행위”라며, 인도적 지원 재개와 생명 유지 기반시설 복원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
 - 그러나 Bar-Illan, Haifa, Ben-Gurion, Ariel 대학 등 4개 대학은 이 성명에 동참하지 않음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international-news/germany-and-other-eu-states-stall-scientific-sanctions-against-israel>

② 유럽 주요 정책 전문가들, FP10에서 ERC의 독립성 유지 촉구(7.31)

- 유럽의 주요 정책 전문가들은 차기 EU 연구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FP10)에서 유럽연구이사회(ERC)의 거버넌스 개혁이 기관의 우수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
 - ERC는 2007년 설립 이래 혁신적이고 고위험·고수익 연구를 지원해 온 성공적 기관으로 평가받으며, 연구자 주도의 상향식 접근 방식을 통해 과학적 성과를 창출
 - 그러나 7월 중순 EU 집행위원회는 2028년에 시작될 차기 연구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ERC의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개혁안을 제안. 이 중 ERC 회장의 임기 단축 조치는 전문가들이 하향식 통제 강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
 - 보코니대학교 Gros 유럽정책연구소장은 Science|Business와의 인터뷰에서 “ERC 회장 임기를 단축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경쟁력 이슈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는 최악의 접근 방식”이라고 비판
 - KU 루벤대학교의 Veugelers 교수도 ERC의 독립성과 과학위원회의 자율성이 연구 효율성 보장에 필수적이라고 강조
 - 유럽정책연구센터의 Renda 연구소장 역시 ERC가 “호기심 기반 연구를 지속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
 - Gros 소장은 ERC의 예산을 두 배로 확대하겠다는 집행위의 제안에 대해서도 예산을 늘리면서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비판
- 정책 전문가들은 FP10의 예산 규모보다는 효과적 집행 및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
 - 차기 FP10의 예산(1,750억 유로)에 대해 정책 전문가들은 단순히 예산 규모보다는 예산의 효과적 사용이 더 중요하다고 의견 일치
 - Renda 연구소장은 “적절한 거버넌스와 함께 효율적으로 집행된다면 1,750억 유로는 충분할 수 있다”고 주장
 - Veugelers 교수 역시 예산 규모보다는 명확한 목표와 성과 측정을 위한 핵심성과지표(KPI)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거 예산 확대에도 성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

○ 전문가들은 FP10의 공동 관리에 우려를 표명

- FP10의 협력연구 부문(필라2)을 집행위 연구혁신총국(DG RTD)과 성장총국(DG Grow)이 공동 관리하도록 한 집행위 제안에 전문가들은 회의적 반응
- Renda 연구소장은 공동 관리 방식이 과거에도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으며, Gros 소장은 성장총국은 단기적 관점에 치우쳐 필라2와 같은 장기 연구에 부적합하고, 이 제안을 정치적 목적을 위한 구조로 평가

○ 2027년 개편된 유럽혁신위원회(EIC)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 간 이견 존재

- Renda 연구소장은 EIC가 미국의 고등연구계획국(ARPA)과 같은 목표 지향적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
- 반면 Veugelers 교수는 EIC가 ERC와 같은 상향식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하며 ARPA와 유사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

○ FP10의 이중용도 프로젝트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 촉구

- Gros 소장은 FP10에 이중용도 프로젝트를 기본적으로 허용하되, 프로그램 전체가 군사적 목적을 띠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
- Renda 연구소장은 FP10의 특정 부문에 한해 이중용도를 허용할 것을 제안하며, 필라1 기초연구와 필라2 사회적 도전과제, 필라4 참여확대 부문은 민간 목적을 유지할 필요성을 지적
- Veugelers 교수는 이중용도 개념 도입에 공감하나 현재의 취약한 거버넌스 구조와 분열된 혁신 생태계로 인해 실행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

○ 유럽혁신기술연구소(EIT)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일부는 자립적 운영을 강조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필라2 통합을 제안

- Gros 소장과 Renda 연구소장은 EIT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지식혁신커뮤니티(KIC)의 자립적 운영을 지지함을 밝힘
- Veugelers 교수는 EIT 자체가 가장 성공적인 프로그램은 아니었으나, 교육-연구-혁신의 통합적 접근 방식은 유용하므로 필라2 내로 통합하는 방식을 제안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european-research-council/experts-defend-erc-commission-overreach-fp10>

③ 가상세계 분야에서 EU의 전략적 역할: 혁신, 투자 및 글로벌 의존성(7.30)

- EU는 가상세계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며 초기 투자 유치에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벤처캐피탈 확보와 시장 성장 측면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23년 7월에 채택된 Web 4.0 및 가상세계 분야 EU 전략 발표 이후, EU 집행위는 다양한 부문의 가상세계 환경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접근법을 추진 중
 - 이 전략의 Action 10의 일환으로, 집행위 공동연구센터(JRC)는 성장 및 혁신 영역을 식별하고, 새로운 과제를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
 - 최근 발표된 첫 [정책 브리핑](#)은 EU가 연구 부문에서 보유한 강점과 초기 투자 유치 능력, 후기 성장 단계의 벤처캐피탈 확보의 어려움 및 외국 가상세계 기업에 대한 EU의 증가하는 관심을 강조
 - 또한, 인공지능(AI)과 확장현실(XR)과 같은 기반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이 분야에서 EU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여전히 중요하다고 언급
- EU는 가상세계 연구 분야에서 전 세계 연구 활동의 29%를 차지하며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
 - 2009년부터 2023년까지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을 통해 3,500명 이상의 프로젝트 참가자들이 확장현실 기술 분야에서 총 30억 유로의 자금을 지원받음
 - 이 프로젝트들은 의료, 교육, 제조 등 다양한 부문에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5G 기술 등을 활용
 - 강력한 연구 기반을 바탕으로 미래 혁신을 지원할 잠재력이 있으나, 연구 성과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상품으로 전환하는 데는 어려움이 존재. 같은 기간 동안 유럽의 가상세계 관련 특허 출원은 전 세계 특허 출원의 4% 미만에 그침

- EU는 역동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지만, 가상세계 기업들이 받는 벤처캐피탈 규모는 미국의 10% 수준에 불과. 반면 초기 투자에 상대적 강점
 - 초기 투자는 상대적으로 EU의 강점이며, 유럽 스타트업들이 중국이나 일본 스타트업들보다 많은 초기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루고 있음
 - 독일, 프랑스, 스페인이 가상세계 분야에서 가장 많은 스타트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에스토니아는 스타트업 밀도가 높은 국가로 두각을 나타냄
 -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EU는 특히 초기 성장 단계의 지속적인 투자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
- 유럽 기업은 외국 가상세계 기업에서 11%의 지분을 보유하며, 이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치
 - 유럽 기업은 영국(31%)과 미국(26%)을 중심으로 외국 가상세계 기업의 11%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외국 투자자 지위를 유지
 - 반면 유럽 기업의 43%는 미국 투자자들의 소유로, 이는 EU 산업 네트워크의 전략적 취약성을 시사하는 불균형을 드러냄
 - 유럽 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한국, 스위스, 일본과 같은 국가들과의 강력한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이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화하고 EU 시장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
 - 가상세계 시장은 2022년 270억 유로에서 2030년까지 8,000억 유로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EU는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인공지능, 확장현실, 디지털 인프라 투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전략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EU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출처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news/eus-strategic-role-virtual-worlds-innovation-investment-and-global-dependencies>

4 터키의 새로운 총장 임명법, 유럽의 기준과 충돌(8.1)

- 유럽대학협회(EUA)는 최근 통과된 터키 대학 총장 임명 관련 법안이 이전 법안과 마찬가지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유럽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
 - EUA는 7월 3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터키의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터키 대통령이 공립 및 재단 대학 총장 임명에 관한 전권을 가지게 되며, 이는 터키 헌법재판소가 올해 초 2018년 대통령령 중 유사한 권한을 무효화한 데 따른 대응 입법이라고 설명
 - 특히 공립대학 총장 임명과 관련하여, “재단 대학은 이사회가 추천권을 가지는 반면, 공립대학의 경우 대학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어떠한 조항도 없다”고 지적하며,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배제한 점을 문제 삼음
 - EUA는 이번 법 개정을 “터키 고등교육 기관이 더 큰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것”으로 평가
- EUA는 유럽 대부분 국가의 경우, “공공 당국이 대학 리더의 공식 임명권을 갖고 있더라도 실제 후보자 선정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는 제한적이거나 전혀 없다”며 터키의 새로운 법이 유럽의 대학 자율성 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
 - 또한 이번 법안이 터키가 지난해 지지한 유럽고등교육공간(EHEA)의 가치와도 충돌한다고 덧붙임
 - EUA는 “대학 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폭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터키의 고등교육 시스템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협력 의지를 표명

출처

<https://www.researchprofessional.com/0/rr/news/europe/politics/2025/8/New-Turkish-rector-law--at-odds-with-European-standards-.html>

5 EU 바이오경제 청년 홍보대사 발족(8.6)

- 제2기 EU 바이오경제 청년 홍보대사단이 발족되어 2년 임무 공식 개시
 - 지난 7월 3~4일 브뤼셀 여름 캠프에 유럽 전역에서 선발된 15명의 청년 리더들이 참여해 순환형 바이오경제 촉진과 EU 녹색 전환 지원을 목표로 활동 계획을 수립
 - 스토리텔링,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허위정보 대응 세션을 통해 EU 바이오경제 전략과 실제 적용 사례를 탐구하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
 - 캠프 전반에 걸쳐 EU 정책과 청년 및 지역사회 연결의 중요성이 핵심 주제로 강조되었으며, 회원국 지역 전반에서 청년들이 지속가능한 변화의 주체로 역할 해야 한다는 인식 확산
 - EU 바이오경제 청년 홍보대사단은 20~30세의 EU 거주 청년들로, 바이오기술, 순환경제, 환경과학, 식품 시스템, 임업, 지속가능 발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 이들은 정책 결정자와의 협력을 촉진하며,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하고 순환적인 바이오경제 확산을 촉진하도록 영감을 줄 것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새로운 EU 바이오경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청년 대사들이 전략 목표 실현과 확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

출처

http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news/all-research-and-innovation-news/eu-bioeconomy-youth-ambassadors-begin-2-year-mission-brussels-summer-camp-2025-08-06_en

2. EU 공모 현황 및 보고서 등

① EU, 호라이즌 유럽 기후·에너지·모빌리티 부문 2026-2027 워크프로그램 초안(8.4)

- EU 집행위는 호라이즌 유럽의 기후·에너지·모빌리티 분야 최신 워크프로그램을 통해 2026년 17억 6천만 유로, 2027년 13억 유로를 연구 프로젝트에 지원할 예정임을 밝힘
 - 2026년 예산 중 약 3분의 1에 달하는 5억 350만 유로는 에너지 관련 연구*에 배정
 - * 인도와 협력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연구, 재생 연료 기술 리스크 완화, 지열 발전소에서 리튬 생산, 산업 프로세스에서 열 효율성 향상, 에너지 분야 데이터 공유를 위한 AI 기반 모델 훈련 지원 등
 - 예측, 전력망 운영, 혼잡 관리, 이상 감지, 유지보수 예측, 고장 진단, 스마트 전기차 충전 등 다양한 연구 주제 제시
 - 2026년 친환경 경쟁력 운송 솔루션 연구*에 2억 5,800만 유로 지원 예정
 - * 장거리 물류를 위한 대형 배터리 전기차 시연, 재생 가능한 저탄소 및 무탄소 수상 연료 안전성 평가 등
 - 2026년 재생에너지 기술 경쟁력 및 전력망 탄력성 강화에 2억 900만 유로 지원
 - 기타 주요 연구 주제로는 유럽과 아프리카 기후 위험 모델링 및 예측 향상, 기후 변화 관련 허위정보 대응, 기후 변화 대응 실패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기회 손실* 평가 등이 있음
 - * 보건 관련 혜택부터 경제적 이점(비즈니스 및 산업 기회, 일자리 창출, 에너지 및 경제 안보, 혁신 및 비용 절감), 환경 및 사회적 개선(생물다양성 보전, 불평등 완화) 등 포함

- 또한, 2027년 에너지 전환 촉진 연구*에 2억 9,450만 유로 책정
- * 산업 폐열의 전력 변환 시연, 통합형 태양광 기술의 순환성 강화, 건물 개보수 자동화 기술, 혁신적인 에너지 저장 기술 개발 등 포함
- 2027년 재활용 프로세스 개선, 이산화탄소 직접 포집, 파력 및 조력 발전 시스템, 리튬 및 나트륨 이온 배터리 생산 기술, 태양광 발전 기술, 에너지 시스템 디지털화를 위한 AI 도구 및 모델 개발에 2억 3,300만 유로 지원 예정
- 이산화탄소 운송 및 저장 인프라 관련 정책 프레임워크 지원을 위한 시장·비용 구조, 국경 간 통합 및 요금 규제 등의 연구 과제 진행
- 2026년과 마찬가지로 2027년에도 기후 변화 이해를 심화하는 연구 프로젝트* 지원 예정
- * 신규 기후 모니터링 도구 및 시나리오 구축, 기후 완화 정책 도구 성과 평가, 육지와 해양의 탄소원 및 흡수원에 대한 이해 증진 등
- 항공산업을 포함한 모빌리티 분야 연구로 지속 가능한 항공기 설계, 적층 제조 기술, 공기질 및 소음 오염 저감 등 연구 지원
- 2026년과 2027년 모두 '청정산업계획(Clean Industrial Deal)'을 지원하는 공동 프로젝트 진행 예정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draft-work-programme-sets-out-climate-energy-and-mobility-topics-2026-and-2027>

② EU 연구 프로젝트 내 사회과학 연구자 통합 여전히 장벽 존재(8.5)

- 호라이즌 유럽 내 사회과학 및 인문학(SSH) 분야 연구자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책 입안자들은 이들의 공동 프로젝트 기여도에 대한 명확한 평가 방식을 여전히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EU 집행위의 첫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2021~2023년 필라2의 약 40%가 SSH 관련 주제로 분류되었으며, 이들 주제에 배정된 예산은 전체 필라2 예산의 41%로, 이는 호라이즌 2020 당시 33%에 비해 증가한 수치
 - SSH 관련 주제 프로젝트의 88%가 최소 한 개 이상의 SSH 파트너를 포함하며, 전체 파트너 중 SSH 분야 비율은 22%를 차지. 그러나 SSH 파트너들의 구체적 기여 방식을 측정하지는 못함
 - Aurora 대학 네트워크 Puras 사무총장은 “SSH 관련 주제로 분류돼도, SSH 연구자들이 연구 문제 정의와 방법론 설계 및 결과 평가에 실질적 참여가 없다면 형식적 참여에 그칠 위험이 있다”고 지적
 - Erasmus University Rotterdam의 공공정책 담당 국장 Georgievska-van de Laar는 “SSH의 영향을 정의하고 평가하는 호라이즌 유럽의 정확한 방법론이 없으며, 학제 간 지식을 통합할 메커니즘도 부족하다”고 지적
 - 유럽사회과학 및 인문학 연합(EASSH)의 Lombardo는 “단순히 참여 파트너 수를 세는 것이 아닌 실질적 연구 기여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
- ※ 기후 및 바이오경제 분야는 SSH 참여가 높은 반면, 보건 및 디지털·산업·우주 분야는 STEM 연구자 중심으로 SSH 참여가 저조
 - Lombardo는 SSH 관련 주제의 표기가 모호해 필요한 전문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
 - EUniWell 매니징 디렉터 Harrison은 SSH 주제 명시 방식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SSH의 실질적 기여를 평가할 더 강력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필요성을 주장
 - 집행위도 평가에서 SSH 통합 결과를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 필요성을 제기

○ STEM 중심 사고 탈피와 SSH의 중요성 강화 필요

- 집행위는 기후변화, 공중보건 대비, 디지털 전환 등에서 SSH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평가가 주로 STEM 프로젝트에서의 SSH 기여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됨
- Lombardo는 “사회적 도전과제는 사람과 그들의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SSH 주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
- Harrison은 “SSH 주제에 STEM을 통합해야 한다는 관점도 고려할 수 있다”며 개인 정보 보호, 민주주의와 같은 사회적 가치가 유럽 경쟁력에도 중요하다고 강조

○ 집행위 보고서는 학제 간 협력을 위해 세 가지 전략(공통 언어 개발, 명확한 목표 설정, 워크 패키지 간 상호의존성 구축으로 SSH 활동의 고립 방지)을 제시

- Puras는 “증거와 영향, 성공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는 것이 학제 간 협력의 핵심이며, 투명하고 엄격한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지적
- Harrison은 권고사항이 SSH 특유의 해결책이 아니라 모든 호라이즌 프로젝트에 적용 가능한 일반적 전략이라고 평가
-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Erasmus 의료센터, Delft 공대는 Convergence 연합을 통해 SSH 통합을 촉진할 새로운 역할과 방법론을 개발 중이며, 이를 호라이즌 유럽의 모델로 제안
- 차기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은 모든 구성 요소에서 SSH 통합을 명확히 하며, 필라2는 글로벌 사회적 도전과제를 다루는 사회 부문과 경쟁력 부문으로 나뉠 예정
- 필라1의 마리퀴리 액션(MSCA)에서도 초기 3년간 SSH 및 경제 분야가 전체 펠로우십, 박사 네트워크 및 직원교환 프로그램의 2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r-d-funding/horizon-europe/barriers-remain-integrating-social-scientists-eu-projects>

③ 2024년 호라이즌 유럽 미션 공고에 30개 컨소시엄 선정(8.1)

- 호라이즌 유럽 미션 2024 공모에서 30개*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총 2억 유로 이상의 자금으로 기후변화 적응 및 해양·수자원 복원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됨

* 해양·수자원 관련 13개 프로젝트, 기후변화 적응 관련 17개 프로젝트

- 선정된 32개 프로젝트 중 30개가 유럽기후인프라환경집행기관(CINEA)과 보조금 계약을 체결했으며, 두 가지 주요 미션인 '기후변화 적응'과 '2030년까지 해양 및 수자원 복원'에 기여할 것

※ CINEA는 5개 미션 중 기후변화 적응, 2030년까지 해양·수자원 복원, 2030년까지 100개의 기후중립·스마트도시 구축 등 3개 미션을 담당

- 프로젝트 평가는 외부 전문가 평가를 기반으로 진행되었으며, 선정된 지원자들은 4~7월 사이 계약을 체결할 예정

○ 세부 공모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기후변화 적응) 제안서 79개 접수, 선정된 19개 중 17개 계약 체결, 약 1억 1,300만 유로 배분
- (해양·수자원 복원) 제안서 42개 접수, 선정된 7개 모두 계약 체결, 약 4,800만 유로 배분
- (해양·수자원 복원 커뮤니티 지원) 제안서 17개 접수, 선정된 5개 모두 계약 체결, 약 5,400만 유로 배분
- (공공 인프라 구축 지원) 공모 없이 특정 기술 전문성 보유 기관에 1,400만 유로 지원하여 유럽 디지털 트윈 오션 공공 인프라 구축 지원
- 동 이니셔티브 참여기관은 중소기업, 연구기관, 지방 당국, 학교, 기업 등 34개국 500여 개에 달함

※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프로젝트 개요](#)에서 확인 가능

출처

https://cinea.ec.europa.eu/news-events/news/horizon-europe-missions-30-consortia-secure-funding-under-2024-calls-2025-08-01_en

④ 호라이즌 유럽 자금, EU의 지속적인 혁신 격차 드러내(8.5)

- 분석 결과에 따르면 4개 EU 회원국이 15개 참여확대국 전체보다 더 많은 호라이즌 혁신 기금을 확보
 - 독일,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가 2021년 이후 호라이즌 유럽 혁신 프로젝트에서 확보한 EU 자금 규모가 중·동유럽 중심의 15개 참여확대(Widening) 국가 전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호라이즌 유럽 혁신 자금의 대부분은 유럽혁신위원회(EIC)를 통해 스타트업에 지원되었으며, 2021년 이후 EU가 지출한 48억 유로 중 37억 2천만 유로가 이에 해당
 - 필라3(Innovative Europe)는 총 2,380개 프로젝트, 6,062명 참가자를 지원했으며, 이중 독일이 전체의 20%로 1위, 프랑스와 스페인이 각각 13%로 가장 많은 자금을 확보
 - 참여확대 국가들의 필라3 내 점유율은 9%에 불과하며, 호라이즌 유럽 전체에서 확보한 21%의 자금 비중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
 - 참여확대국 모두 2% 미만에 머물렀으며, 폴란드와 포르투갈이 각각 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2025년 유럽혁신스코어보드에서도 혁신이 서·북유럽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다만 2018년 이후 일부 참여확대국의 성과가 크게 개선됐으며, 에스토니아가 유일하게 ‘혁신강국(Strong Innovator)’ 범주에 진입
 - 참여확대국 간에도 격차가 큰데, 특히 포르투갈, 그리스, 키프로스 등 남유럽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진전을 이룸
 - 증가하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집행위는 차기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서 참여확대국 2단계 차등 지원 방안 도입을 제안. 15개 국가를 더 많은 진전을 보인 전환(Transition) 국가와 여전히 추가 지원이 필요한 참여확대(Widening) 국가로 구분하려는 계획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r-d-funding/research-and-innovation-gap/data-corner-horizon-europe-funding-points-persistent-eu>

5 EIT 2024년 국가별 팩트시트 발간(7.28)

- 유럽혁신기술연구소(EIT)는 국가 차원의 EIT 영향력을 설명하는 국가별 팩트시트를 발표

- ※ [국가별 팩트시트 확인](#)

- ※ EIT 커뮤니티는 유럽 전역 주요 파트너와 함께 기업가 교육 과정, 비즈니스 창출, 가속화 서비스, 혁신 주도 연구 프로젝트 등 다양한 혁신 및 기업가정신 활동을 제공
 - EIT 국가별 팩트시트는 EU 회원국 및 그 외 지역에서 EIT의 존재, 투자, 활동 및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줌
 - 팩트시트에 따르면 2023~2025년 동안 EU 회원국에 설립된 법인에 총 8억 2,672만 유로의 EIT 자금이 투입됨
 - EIT 커뮤니티는 유럽과 비EU 국가에 등록된 법인에 대해서도 3,154만 유로의 자금을 지원

출처 <https://www.eit.europa.eu/library/eit-country-factsheets-2024>

3. EU 연구성과

① [성공사례] 보편적 개념으로서 ‘명예’ 재정의

- 명예(honour)는 특정 역사적 맥락에 국한된 개념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HCG 연구팀은 명예(그리스어 timê)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모든 인간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보편적인 메커니즘이라고 주장
 - 연구 책임자인 Cairns 에든버러 대학교 고전학 교수는 “명예는 단순히 존경받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는 상호 존중과 인정에 관한 문제이며, 명예는 비공식적인 대화부터 정치적 담론까지 모든 상호작용에 존재하는 깊이 관계적인 현상”이라고 설명
 - 유럽연구위원회(ERC)의 지원을 받은 동 연구 프로젝트는 명예 개념이 특정 사회계층이나 특정 성별 역할에만 국한된다는 기존 학계 연구의 편견을 극복하고, 명예가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
 - 일상에서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거나 가게 점원에게 예의를 갖추는 등 존중을 표시하거나 추구하는 모든 상황에서 명예가 드러남
- 고대부터 현대까지, 명예에 대한 새로운 시각
 - 동 연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고찰부터 현대 윤리학 논의까지를 아우르며, 정체성과 주체성을 협상하는 데 명예가 지닌 시대를 초월한 중요성을 밝혀냄
 - 연구팀은 명예를 고립된 개념이 아니라 인간 행동을 형성하는 역동적인 힘으로 탐구하며, 고대 그리스 문헌에서부터 리더십, 사회 불평등, 문화 정체성에 관한 현대 논의까지 아우르는 보편적 현상으로 분석
 - 인지심리학, 정치이론, 사회학적 접근을 활용해 문화와 시대를 가로질러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을 협상하는지 탐구하며, 명예가 개인적이면서 집단적인 힘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여줌
 - 연구팀은 또한 고대와 현대의 맥락을 연결해, 고대 그리스의 오만(hubris)의 개념이 정치, 비즈니스, 사회 역학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

- Cairns 교수는 “오만은 단지 거만함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과 타인을 바라보는 시각의 불균형에 관한 것”이라며, 정치 및 비즈니스 영역에서 특히 오늘날까지도 이 개념이 유효하다고 설명
- 연구팀은 명예의 “경제(economy)” 개념을 통해 고대 그리스의 가정 희극에서도 여성, 아동, 노예와 같은 인물들이 명예의 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명예가 공적이고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행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기존 인식을 뒤집는 결과를 제시
- 명예는 존중과 존경 같은 관련 개념들과 함께 여전히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 연구팀은 고대 그리스부터 중국까지 다양한 사회를 비교하며, 존중 받고자 하는 욕구가 모든 문화와 사회적 지위를 가로지르는 인간 상호작용의 기본 요소라는 점을 확인
 - 이는 이메일이나 대면 대화 등 현대의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에도 나타나며, 성별과 인종을 포함한 모든 관계 유형에 영향을 미침
 - 또한 명예가 단지 찬양받는 것이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명예가 존중을 주고받는 방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입증
 -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ERC와 영국연구혁신청(UKRI)이 지원하는 후속 연구가 이미 진행 중이며, 이는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 계급 투쟁을 중심으로 HCG 연구 결과를 확장하는 것
 - Cairns 교수는 “명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개념이며, 개인적 관계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정의하는 광범위한 사회 구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에 스며 있다”고 결론지음

HCG 프로젝트

- 기간 : 2018.01 ~ 2023.12
- 예산 : 약 1,893,626.00 유로 (EU 전액 지원)
- 총괄 : THE UNIVERSITY OF EDINBURGH(영국)

출처

<https://project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en/projects/success-stories/all/redefining-honour-universal-concept>

2 [연구모음] 지속가능하고 순환적인 바이오경제 혁신을 통한 EU 번영 강화

- 지속가능하고 순환적인 바이오경제 혁신은 삶의 질을 보장하고 사람, 지구, 번영에 기여할 수 있으며, EU의 비재생 자원 및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 사회, 환경 간의 연결을 강화함
 - 바이오경제 혁신은 기후 변화 완화와 적응에 기여하며, 유럽 산업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줌
 - 이번 CORDIS 결과모음은 바이오경제 분야에서 EU 자금 지원을 받은 15개 연구혁신 프로젝트의 결과를 소개하며, 환경 영향 감소부터 고용 창출까지 다양한 이점을 보여줌
 - 바이오경제 솔루션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재생 가능한 생물학적 자원을 통해 식품, 소재, 제품, 에너지를 보존하고 복원하며 생산 또는 소비하는 방식으로 작동
 - 이는 순환성을 높여 폐기물과 오염을 최소화하고, 소재와 부산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제품 수명을 늘리는 효과를 발휘
 - 바이오 기반의 소재와 연료를 통해 화석 자원에 대한 의존과 오염을 줄이고, 농촌 지역의 활력을 높이며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에 대응
 - 유럽 농민과 산림 소유자 및 청색 바이오경제 분야 종사자들이 바이오경제 솔루션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향후 확장을 약속
 - 유럽의 혁신가들은 화석 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여 바이오매스, 에너지, 물 사용을 절감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
 - 본 결과모음에 소개된 프로젝트는 생물학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생태학적 한계 내에서 바이오매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며 녹색 전환을 추진하는 바이오경제 솔루션 분야에서 유럽의 선도적 위치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
 - 연구 및 혁신 기반 바이오경제 솔루션은 유럽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소비자와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음

- 바이오매스 부산물과 폐기물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순환성을 강화하고, 연구실에서 시장으로의 혁신 전환 및 바이오경제 거버넌스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 EU의 호라이즌 2020 및 호라이즌 유럽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된 주요 바이오경제 혁신 프로젝트

- (MY-FI) 균류를 활용해 섬유 산업을 위한 지속가능한 바이오 소재 개발
- (FuturEnzyme) 섬유, 세제, 화장품 분야의 효소를 발견하고 설계하는 혁신적 방법 개발
- (ENOUGH) 냉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기술 및 도구 개발
- (SUSTCERT4BIOBASED) 바이오 기반 제품의 투명성 및 추적성을 강화하는 시스템 구축
- (BioRural) 유럽 농촌 지역의 소규모 바이오 기반 솔루션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BlueRev) 유럽 지역 공동체의 권한 강화 및 순환경제 발전 촉진
- (ShapingBio) 바이오경제 혁신 강화를 위한 분야별, 정부별, 지역별 권고사항 제시
- (BioBeo) 청소년 대상 바이오경제 교육용 디지털 도구 개발
- (CEE2ACT) 중동부 유럽 국가의 순환 바이오경제 전략 개발 지원
- (RAINFOREST) 식품 및 바이오매스 가치 사슬에서 생물다양성 영향 감소 경로 탐색
- (RESONATE) 원격 감지 데이터를 활용한 유럽 전역의 교란 지역 매핑
- (AFTERBIOCHEM) 비식용 바이오매스를 친환경 제품으로 전환하는 최초의 제조 공장 설립
- (VIVALDI) 바이오 기반 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물을 유기산으로 전환
- (GeneBEcon) 유전자 편집 기술로 감자와 미세조류의 농업 생산 및 산업 가공 개선
- (SCALE) 식품, 식품보충제, 사료, 화장품 산업을 위한 조류 기반 원료 생산

출처

<https://cordis.europa.eu/article/id/460078-strengthening-the-eus-prosperity-through-sustainable-and-circular-bioeconomy-innovations>